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96)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36 (3)서귀포지역도 예외 아니-(29)미악산과 영천악·침오름
오름 계곡 따라 줄줄이 갱도 구축

입력 : 2008. 03.06. 00:00:00



▲영천악 계곡 쪽에서 찾아낸 일본군 갱도진지 내부를 취재팀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영천악·침오름에서 日 갱도진지 찾아내
소규모 불구 일본군 주둔실상 파악 단서**

태평양전쟁 당시 108여단을 중심으로 한 서귀포 일대 일본군은 어디에 어떻게 주둔했을까. 당

시 일본군 군사지도인 '배비개견도'에 따르면 '복곽진지'는 미악산 일대로 표시돼 있다. 서귀포 일대에서는 유일한 복곽진지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악산(米岳山·쌀오름, 표고 5백67.5m)은 서귀포 일대 중심적 위치에 놓여있는 오름이다. 서귀포 칠십리 해안가와 한라산 정상부를 뚜렷이 조망할 수 있다. 이런 여건 때문일까.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5년 4, 5월 무렵 일본군 108여단은 미악산(서귀포시 동홍동 산7번지 일대) 일대에 사령부를 설치한다. 미악산 위쪽 서산벌른내 계곡 상단부에 구축된 갱도진지를 통해 이 일대가 일본군 주요 주둔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미악산에서 일본군 갱도진지를 찾기란 쉽지 않다. 발디딜 틈조차 없이 잡목이 빼곡히 자라고 있어서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취재팀과 동행한 지역주민 한옥상씨(서귀포시 대포동 231)가 "상당히 깊은 일본군 갱도가 있었다"고 한 곳은 무너져 내린 상태여서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일본군의 주둔 흔적은 영천악(靈泉岳·표고 2백77m)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서귀포시 상호동 산 123번지 일대에 자리잡은 영천악은 온통 난대림으로 울창한데다 효돈천을 끼고 있어 계곡미가 빼어나다. 예전에 영천사와 영천관지가 위치해 있어서 유명했던 곳이다.

이곳에서 갱도진지는 속칭 '용두굴'로 불리는 소하천에서 찾을 수 있다. 영천악에서 처음 확인된 이 갱도는 길이가 15m 정도 되는 소규모다.

갱도는 끝부분이 왼쪽으로 꺾인 기역(ㄱ)자형 구조다. 송이(scoria)층을 뚫고 만든 갱도 내부는 목갱이 흔적과 갱목기둥을 세웠던 자국 등이 뚜렷이 남아있다. 갱도내부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표고버섯 재배장으로 이용됐다고 한다. 또한 바로 옆에 직선형 갱도가 있었다고 지역민들은 증언하나 현재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물길이 휘어지는 구간이어서 입구가 막히는 등 훼손·멸실된 것으로 보인다.



▲첨오름에서 확인된 일본군 갱도진지 내부에서 입구 쪽을 바라본 모습(사진 위)과 갱도진지 주변.

효돈천을 사이에 두고 영천악과 마주하는 첨오름(葛岳·표고 2백71m)에서도 일본군 갱도는 확인된다.

서귀포시 상호동 산129번지 일대에 자리잡은 첨오름은 동남쪽 기슭으로 효돈천이 절경을 이룬다. 그런데 오름 기슭은 아름다리 나무들이 상당수 쓰러져 있다. 기록적인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지난해 태풍 '나리'가 할퀴 상처다. 이로 인해 일본군 갱도진지 역시 입구가 무너져 있다.

첨오름의 또다른 갱도는 오름 북사면 7부 능선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비교적 단단한 송이층으로 단애를 이룬 곳이다. 이곳에서 확인된 갱도는 소규모다. 정면으로는 가까이에서부터 영천악과 수악 동수악 등이 차례로 조망된다. 첨오름 서쪽으로는 108여단사령부 주둔지였던 미악산과 멀리 거린사슴이 보인다.

이처럼 서귀포 일대는 영천악과 첨오름 서산벌룬내 이승악 수악계곡 등 계곡을 낀 오름 주변마다 일본군 갱도진지 등이 숨어있다. 대규모 군사시설을 구축한 제주 서남부 지역 뿐 아니라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군사요새로 오늘날까지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인터뷰/이타쿠라 히로미 마쓰시로대본영보존회]"침략전쟁 산물 日 군사시설 양 지역 평화교류의 장으로"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천황과 대본영 등이 연합군과의 본토결전에 대비해 만든 마쓰시로대본영보존회 관계자가 제주도에 남겨진 일본군 군사시설과 관련 양 지역의 평화교류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타쿠라 히로미씨(板倉弘實·77·마쓰시로대본영 보존회)는 지난 1일 본사를 방문 특별취재팀과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인해 많은 군사시설이 만들어진 제주와 일본 나가노현의 평화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타쿠라씨는 이날 "일본이 군사대국화로 간다면 결국 한반도의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마쓰시로대본영과 제주도에 남아있는 일본군 군사시설 등의 교류운동을 통해 시민단체 및 지방정부간 평화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나가노시도 평화도시인 만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도와 행정차원에서 자매결연도 추진되기를 희망했다. 이타쿠라씨는 이러한 평화교류 협력을 위해 몇 년 전부터 일제 흔적을 조명하고 있는 한라일보사가 적극 앞장서 달라는 당부도 했다.

이타쿠라씨는 또한 "일본군이 본토결전을 위한 전쟁터로 제주도에 각종 군사시설을 건설한 아픈 역사를 거울삼아 양 지역의 평화교류운동을 '일본국헌법9조'를 지키는 모임으로 발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일본헌법 9조는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쟁과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육·해·공군과 어떠한 무력도 가지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의 우익에 의해 헌법9조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타쿠라씨는 또 "마쓰시로고교가 올 가을 수학여행지로 제주도를 선택했다"며, "그 이유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제주도에 건설한 전쟁유적을 둘러보며 일본이 저지른 역사를 바로알고 이를 통해 양 지역의 평화교류를 다져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가 탐사보도하고 있는 '고난의 역사현장 일제전적지를 가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온 이타쿠라씨는 지난해에도 취재팀의 안내로 일본군 갱도진지 등을 둘러봤다. 이어 '제주도평화여행의 모임'을 만들어 일제침략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제주도에 남아있는 대규모 군사시설의 실상을 일본내에 알리는 활동을 펴고 있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